

특류세평 양성덕 이과대 교수·수학과

이과대학 학생회 체육대회 참관기



며칠 전 이과대학 학생회 체육대회를 참관하였다.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녹지 운동장에서 축구, 이어달리기, 족구, 줄다리기 등이 진행되었는데 오랜만에 젊은이들의 넘치는 힘과 합성을 접하니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였다. 마음 같아선 나도 그 무리의 하나가 되어 푸른 잔디밭을 같이 달려보고 싶었지만, 나이를 생각하며 꼭 참고 줄다리기 심판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필자가 지난 20년 동안 녹지 운동장을 찾은 횟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중 한 번은 수학과 교수·학생 체육대회고 나머지는 문과대학·이과대학 연례교류회의 일부로 축구를 할 때였다. 문과대학·이과대학 연례교류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술 세미나와 더불어 축구를 했었는데 교수님들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축구 도중 다치는 분들이 늘어나 2018년쯤 운동 종목을 축구에서 당구와 탁구로 바꾸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연례교류회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어서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시 문과대학·이과대학 연례교류회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수학과 교수·학생 체육대회는

2006년 9월 28일에 녹지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조금 충격적이다. 2005년 말에 수학과 졸업반 학생들이 사은회를 한다고 초청해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서 졸업반 학생들끼리 서로 처음 이야기를 나눈다며 인사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사정을 들어보니 당시는 학과가 아닌 이과대학으로 입학하여 6개의 반으로 나뉘어 1년을 생활한 후에 2학년부 학과로 진입하는 학부제로 학제가 운영되던 때였는데 그 첫 1년 동안에 교우 관계가 굳어져 2학년 이후부터 진입하는 학과에서는 친구를 새로 잘 사귀지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에 매우 놀란 학과 교수님들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고 결의해서 교수·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MT에 몇몇 교수님들이 따라가 보기도 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참여도도 높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으면 꾸준히 내려오는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학부제가 아닌 학과제로 학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과 동기들이 서로를 다 잘 알면서 지내고 있을까?

필자가 고려대학교의 시설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없다는 것이다. 녹지 운동장은 사실 매우 좋은 시설이다. 문제는, 공식 단체만이 예약한 후 정해진 사용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

인적인 운동은 예약조차 할 수 없다. 친구들끼리 모여 놀다가 충동적으로 ‘야, 우리 축구나 한판 할까?’라는 건 지금의 고려대학교에선 가능하지 않다.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캠퍼스 여기저기에 있는 농구장은 누구나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운동장을 없애야 했던 이유가 있다.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시설을 확충하고 새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땅이 좁으니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을 없앴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을 만들 때도, 새로운 규정이나 학칙을 만들 때도, 문제는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하는 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와 아쉬움과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할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유한하고 한번 내린 결정의 결과가 불가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글을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신중을 기한다고 결정을 미루다 보면 진전이 없다. 우리는 제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앞으로 전진하여 결국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신중함이 우선적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신중함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는 신중해야 하고 언제는 과감해야 하는가? 필자도 그 답을 알고 싶다. 오심을 넘겨 욕심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모르겠다.

‘냉전’(冷箭)은 숨어서 쏘는 화살이란 뜻으로 고대신문 동인이 쓴다. 冷箭

여기 두 자영업자가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의 피해를 본 A와 개업 이후 역대급 영업 호황기를 누린 B다. 편의점 회사에서 영업관리직을 맡음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휘몰아쳤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누비던 동안 두 자영업자의 모습을 그려본다.

A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손님이 뚝 끊겼다. 사실 A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1년 5월, 본교 인근에 편의점을 개업했다. 그때만 해도 언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떠들 때였다. 2021년 2학기 수업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

고 B의 손에 쥐어지는 돈도 늘었다. 처음에 B는 연일 콧노래를 불렀다. 순이익이 월 몇백만 원 올랐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몇 달 후 B는 상품 판매가 늘어 진열과 정리가 힘들다고 투정했다. 심지어 손님이 적게 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높은 인건비 탓에 사람을 더 쓰기는 어려웠다 보다. 배부른 소리라고 맞받았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어느 날, B는 ‘이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급전적 이득보다 불편함이 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 같

다며 안쓰러워했다.

두 자영업자

을 줄 알았다. 하지만 8월 이후 증가한 확진자에 오프라인 수업은 물 건너갔다. 해당 편의점을 방문할 때마다 A는 ‘개미 한 마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난 그런 그에게 ‘곧 등교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말을 손에 쥐여 드렸다. A와 유사한 곳도 많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 시장 등 변화가 인근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중 일부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도 했다. 실제로 안암동 상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매출은 올랐

이처럼 코로나19는 두 자영업자에게 상반된 모습으로 찾아왔다.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는 요즘, A의 여건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누적 손익은 적자다. B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거의 돌아갔다. 이제 두 자영업자 모두 행복한 듯 보인다. 내게 두 자영업자의 매출은 일상 회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정말 반갑다. 하지만 동시에 제2의 코로나19가 나타날까 두렵기도 하다. 꼭 그것이 역병(疫病)이 아니라도 말이다. 그랜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Do Dream)

카메라사계



점심시간의 여유

여유로운 점심시간, 김지산(문과대 중문18) 씨는 중앙광장 바닥에 앉아 노트를 꺼낸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한 문장씩 고심하며 영어로 번역해 써 내려간다. 따스한 햇볕, 약간은 차가운 공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가을의 한가운데, 취미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다.

문원준 기자 mondligh@



高 FLIX

高FLIX는 고대인이 애정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숭고한 혁명인가, 도피인가



《몽상가들》
별점: ★★★★★
한 줄 평: 혁명의 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참한 도피처이다.

1968년, 서유럽과 미국의 거리는 혁명의 분위기로 들떠있었다. 68혁명의 주인공이었던 당시 서유럽과 미국의 대학생들은 반인종차별, 반자본주의, 반성차별, 반권위주의, 반전이라는 의제를 공유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주의 노선과 자신들을 구분하며 ‘신좌파’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대학 건물과 그들의 방엔 마오쩌둥, 호찌민, 체 게바라의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거리는 ‘금지함을 금지하라’와 같은 슬로건을 내건 학생들이 매우고 있었다. 가장 퇴폐적이고 감각적인 영화로 손꼽히는 ‘몽상가들’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한다.

몽상가들의 주인공은 시인으로 써 경제적 성공을 거머쥔 아버지를 둔 테오, 이자벨 쌍둥이와 미국에서 온 매튜이다. 이질적인 그들은 시네마테크라는 공간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매개로 서로에게 끌리며

친해지게 된다. 테오와 이자벨은 일상에서 고전 영화들의 장면 장면을 재현하고, 그 영화가 어떤 영화에서 온 것인지를 맞추며 자폐적 세계를 이룬다. 매튜는 그 세계의 벽을 영화 매개로 하여 뚫고 들어가 그들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매튜는 쌍둥이에게 매혹적인 만큼 위험한 이방인이다. 정상성에 반기를 들었던 68년이 배경이었기에 그들의 과도한 애착 관계는 ‘정의되지 않는 특별한 관계’였다. 서로를 삼쌍둥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관계는 매튜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비정상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그들의 분리불안, 현실성 없고 유아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각자 다른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었던 세 몽상가. 어느 순간부터 매튜는 쌍둥이에게 현실과 규범을 들이부게 되었고, 갈등은 절정에 이른다.

매튜는 테오가 흥분병을 동경함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거리로 나서지 않는 모순을 비난하고, 이자벨은 셋이 알몸이 되어 자는 모습을 부모님께 들긴 후 수치심에 가스로 자살을 시도한다. 그때 시위대가 던진 돌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몽상가들은 몽상에서 깨게 된다.

눈앞에 쉽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음에도 올바르게 힘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기성세대의 부에 기대 탁상공론만 펼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테오와 수치심에 죽으려고 했던 이자벨에게 화염병과 최루탄이 오고 가는 혁명의 거리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것이다. 매튜는 거리로 뛰쳐나간 쌍둥이를 붙잡고 저 시위는 우리가 증오하던 파시스트들의 폭력과 다를 것이 없다고, 사랑과 대화로 문제를 대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둘은 화염병을 주워 들고 시위대의 가장 앞까지 달려간다. 매튜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린다.

쌍둥이는 꼬이고 꼬인 내면의 문제를 혁명의 거리에 자신을 던지며 회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확률만 더 낮을 뿐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감독은 68혁명이란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던 개인들의 동기를 조명하며 메시지를 던진다. ‘더 커다란 선을 위해’가 정당한 핑계가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대윤(심리15)

LATTE고신

Latte 고신은 과거 요맘때,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1947년 11월 3일

2014년 9월 29일
1758호

2022년 9월 26일

안암총학,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 선언해

유민지 기자 you@

본교 제 47대 안암총학생회(회장=최종운, 안암총학)가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을 진행한다. 이번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은 안암총학의 제 1공약으로, 중앙일보의 대학순위평가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9일 안암총학이 발행한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 자료집’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시행하는 대학순위평가는 대학의 △서열화 △양적 평가 △수치만을 위한 국제화 등을 조장한다. 최종운 안암총학생회장은 “상위 30개 대학에 한해 구체적인 순위를 공개하고, 기사 제목에서 대학 서열을 부등호로 표시하는 등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교수의 연구 업적이나 학생 평가 등을 정량적 지표로 환원해 질적 평가가 아닌 양적 평가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학 평가의 자료 제공에 참여한 한 이공계 교수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의 지표 중에는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에만 집중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암총학은 세부 평가항목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국제화 지수’로 각 대학이 본질적인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강의나 교환학생 비율

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종운 회장은 이번 운동이 대학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평가 자체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다”며 “다만 서열화에 그치는 현재의 순위 평가를 탈피하는 것을 넘어선 진정한 대학평가가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암총학은 서울대,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운 회장은 “대학교육의 수치화할 수 없는 여러 가치를 존중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가_거부의_첫_시작 #수궁과_순응사이 #올해는_몇_위?

김인엽 기자 dzlight@